

주민과 함께하는 좋은 병원이 목표

이웃돕기 적극 나서고 있는 고려병원 김 철 이사장

한해 수천만원 성·금품 기탁

의료지원사업에도 관심 기울여

“고려병원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좋은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려병원 김철 이사장은 요즘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고는 물론 지역 주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환자를 내 몸같이 돌보는 것은 물론 고려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온정을 나누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6일 구청장실을 찾아 남구에 있는 무료급식소 6곳에 나눠달라며 500만원 상당의 쌀 120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고려병

원이 소재한 남구지역에 사람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쌀을 전달하게 됐다”며 “추석을 맞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려병원의 이웃 돌봄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구민들의 의료복지에 사용도록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병원이 위치한 대연1동 주민센터에 매년 6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병원은 물질봉사도 봉사이지만 의료 봉사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사실 고려병원의 이웃 돌봄 사업은 물질봉사 보다 의료 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원 당시부터 구청과 동, 학교 등 관내 각급 단체들의 행사시 의료지원에 나서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부산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명성을 쌓고 있는 고려병원 김철 이사장이 병원의 이웃사랑 사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는 또 “고려병원은 지난 한 해에만 10여 차례 의료봉사활동을 벌이며 주민들의 건강 보살피기에 적

극 나섰다”며 “특히 남구보건소를 도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진료와 치료에 정성을 다하며 봉사의 영역을 넓혀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에는 지하철 대연역에 남구민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부스를 설치하고 매월 2차례 행사를 열어 현재까지 5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해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고 뿌듯해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남구축구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고 고려병원배 축구대회를 열어 사회적 체육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철 이사장은 “고려병원은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부산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 장비, 그리고 시설을 갖춘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성장하게 됐다”며 “여기에 전 의료인들의 정성과 열정을 더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은 물론 소외계층을 돌보는 좋은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철 이사장은 남구문화원 부원장과 경찰발전지원, 대연1동주민자치위원, 남해지방경찰청 해양치안지원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사람과 사람

시집 ‘나예젠 아직도...’ 발간

정봉화(용호1동) 전 시의원이 자신의 첫 시집 ‘나예젠 아직도 꿈이 있다’를 발간했다.

시집에는 시인의 ‘독도’와 ‘어머니’, 그리고 ‘꿈’ 등을 주제로 한 작품 50여점이 수록돼 있으며 작가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글로 쓴 산문도 여러 편 실려 있다.

정봉화 시인은 지난해 ‘시와 산문’지를 통해 문단에 데뷔했으며 현재 부산여류시인협회의 문화분과위원장과 문화와 문화타임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문인회와 한국녹색시와 산문 회원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보이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10월 1일 오후 6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626-0873



한국문인화대전서 대상받아

남구민들이 최근 열린 전국 단위 서예대전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호2동 하곡선사(전)씨는 지난달 21일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문인화대전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국전 특선작가인 하씨는 이번 대전에 ‘독매’를 출품해 화제갈채의 흐름이 매화의 필선과 잘 조화를 이뤄 생동감과 자연스러운 맛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가는 현재 대연4동 주민센터 문인화반에서 석호 서거식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다. 이외 함께 용호1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희국씨는 지난달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문인화대전에서 특선의 영예를 안았다.

유재순씨와 김동봉씨도 입선했다. 이들은 남구문화원 서예반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록도무용단 안무자 선임

윤정미 우리춤사상연구회 회장이 지난 13일 남구오록도무용단의 새로운 안무자로 선임됐다.

신임 윤정미 안무자는 창원시립합창단에서 훈련 지도를 맡았으며 현재 윤정미무용단과 우리춤사상연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단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우리춤에 관심있는 남구 거주 여성 누구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모집
- 연습장소 및 시간 : 매주 월·수·오·후 3시 백운포 남구국민체육센터 연습실 내
- 연습내용 : 일출, 정고춤, 사물 등
- 문의 : 010-6503-3424

■ 명사들의 남구에 찬 –이승억 부산지방병무청장

이기대 산책로 축복받은 명품길

타지 선·후배에 적극 홍보…견다보면 향토애가 절로

“오록도와 이기대 등 빼어난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남구 용호동에 산다는 것은 분명 축복일 것입니다”

이승억(용호1동·59) 부산지방병무청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용호동 사랑에 흠뻑 빠져 있다.

특히 이기대 해안산책로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다르다. 이 청장은 틈나는 대로 이곳을 걸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떨쳐 내고 건강을 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등지에서 지인들이 내려오면 빠지지 않고 이기대를 함께 걸으며 홍보(?)에 열을 올린단 한다.

열에 열병 이기대 절경을 바라보고 경탄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청장은 큰 보람을 느낀다.

“이기대와 오록도 풍광을 바라보고 즐겨워하는 지인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향토애가 저절로 샘솟는 듯 합니다. 현대적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잘 어우러진 용호동의 모습도 꽤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장의 남구 사랑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시간 나는 대로 용호동 지역 전통시장을 누비며 찬거리를 사는가하면 보리밥집을 즐겨 찾으며 푸근한 인정과 사뭇 사는 정취를 한껏 느끼고 있다.

환경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청장은 얼마 전 부산환경공단 주최로 열린 ‘히수처리장 음악회’를 관람하고 최첨단 시설을 통해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변모한 남부사업소의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까지 애써 준 지역 국외의 일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에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지난 2008년 5월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 부임한 이 청장은 업무에 있어서도 특유의 진취력과 추진력으로 현안 해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병무청 본연의 업무인 징병검사와 입영, 동원훈련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얼마 전 끝난 을지연습의 보안점을



파악하고 정책자문위원을 초청, 주요 추진사업과 역점사항을 설명하고 병무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업무보고회를 개최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또 징병검사대상자들을 위해 보다 인격적이고 편리한 시설개선 노력을 위해 힘써 오고 있으며 병역의무의 첫발을 내딛는 검사 대상자들에게 좋은 인상과 병역의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친절도 향상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신경희 기자

김영식 회장 국민포장 받아

출산장려금 캠페인 전개로 저출산 극복에 앞장

명품 건강식품과 광고 카피로 유명한 천호식품의 김영식(59·대연5동)회장이 출산 장려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다.

김영식 회장은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 등록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200만원을 지원 하는 ‘출산장려금’ 캠페인을 펼치

고 있다. 캠페인 재원은 김 회장이 자신이 발간한 책 ‘100미터만 더 뛰어봐’의 더세와 강연수입, 그리고 회사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 마련했다. 2억원으로 시작한 기금은 현재 5억원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지급된 출산장려금은 115명에게 2억3,000만원이나 된다. 회사 직원들은 첫째·둘째를 출산하면 100만원씩, 셋째를 낳으면 1,220만원을 받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가 부자나라로 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저출산 극복이라고 생각해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며 “국민포장을 받게 된 것은 이번 캠페인의 순수한 의미를 이해해주고 동참해 준 많은 분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겸손해 했다.

이곳에 온 정을 -감만동 하재권씨 가정

아홉 식구가 편하게 쉴 단칸방이라도...

일용직 가장 7남매 양육 힘겨워

분유·기저귀값도 없어 ‘발동동’

일용직 근로자인 하재권(41 감만1동)씨는 3남 4녀, 7남매를 둔 다자녀 가정의 가장이다.

“용정 일을 하지만 워낙 부양가족이 많다보니, 밥에도 세차 등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지만 어렵긴 매 한가지네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면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피곤을 잊게 해주고 용기를 줍니다.” 재권씨의 말처럼 7남, 4남, 2남자녀 딸들이 즐락즐락 엄마의 웃자락을 잡고 따라다닌다.

엄마 노혜선(38씨)의 안타까운 눈길에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도 아이들이 모두 씩씩하게 잘 자라주

어 위안이 되고 있답니다. 형제가 많다보니 스스로 할 일을 알아서 하고, 성격들도 모난 구석 없이 서로 위해주고 그래요.”

올 해 초, 시이모집인 이곳에 2년 부상으로 분가 한 하씨 부부는 하루하루를 노심조사하며 지내고 있다. 상가 이층이다 보니 (일출은 술집) 밤이면 시끄러운 소음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커녕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지경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창 사춘기에 들어선 둘째(고1)와 셋째(중1)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사교육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편안해야 할 집조차 아이들에게 휴식처가 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고개를 떨군다.

큰길 가 도로변이라 먼지 때문에 문을 열어 둘 수도 없고, 낡은 집이

다보니 비만 오면 방에서 물방울 피아노 소리가 울린다며 농담 섞인 하씨 소연을 한다. 오래된 벽지는 누렇게 변색이 되어 어두운 방안을 더욱 음沉沉스럽게 부추기고 있어 조금만 돈이 모이면 이사부터 할 계획이라며 한숨짓는다. 더구나 지난 4월부터 뇌졸중 치료를 받는 시어머니 간병까지 하는 도중 7월에 7째를 출산한 터라 혜선씨는 더욱 쫓겨할 수가 없다. 그래서 힘든 난관을 도울 수조차 없으며 안타까워한다.

비록 생활은 어렵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여자인지 하씨 부부와 아이들의 얼굴이 햇빛처럼 밝고 평화롭다.

조을출 기자
*하재권씨 가정에 도움 주실 분은 감만1동 복지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607-6831, 4812

내 고장 사랑카드 쓰면 기금 쌓입니다

내 고장 부산남구 사랑운동 체결 앞둔

KB국민은행 김영만 중부산지역본부장

“내 고장 부산남구 사랑운동을 통해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11월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내 고장 남구사랑운동 협약식’을 앞두고 있는 KB국민은행 김영만 중부산지역본부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남구와 한국일보, KB국민은행이 힘을 모아 남구 사랑운동을 펼쳐게 됐다”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김영만 본부장과의 일문 일답.

-내 고장 남구사랑 운동 협약 체결식의 의미는.

▲남구와 한국일보, 국민은행이 손을 잡고 ‘내 고장 남구사랑 운동’을 벌여 주민들에게 지역사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애환심과 이웃애를 고취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남구를 만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 고장 남구사랑 운동을 설명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남구와 기업간의 상생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남구민들이 국민은행의 내 고장 사랑카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관내 어려운 이

웃을 돕기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 등 특별기금이 지원됩니다. 또 카드소지자가 카드를 쓸 때마다 이용액의 일정부분을 은행에서 기금으로 조성, 환원해 주는 운동입니다. 기업은 판촉비용 등을 줄여 발생한 잉여부분을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사회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어 윈윈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참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 고장 사랑 카드는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카드 소지자들의 혜택을 줄여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이 이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주민 1인이 이 카드를 발급 받으면 1만원의 특별기금이 쌓이게 됩니다. 또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0.2% 기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전액 남구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카드 소지자들에게는 SK주유소 리터당 100원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10% 할인, 영화예매 할인, 전국 호텔 숙박 최고 75% 할인 등의 혜택은 그대로 주어진다



것이 이 카드의 장점입니다. 다시 말해 내 고장 사랑 카드는 누릴 혜택은 다 누리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카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내 고장 남구 사랑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김영만 본부장은 1968년생으로 현재 용호2동에 거주하고 있다. 서부산영업지원본부 팀장과 금곡동지점장, e-비즈니스부 부장 등의 주요보직을 거친 후 올해 1월 중부산지역본부장으로 부임했다. 해박한 업무지식과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갖추고 있으며 뛰어난 리더십과 대인관계로 상하 직원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 우/리/구/시/람/들

달콤한 도넛이 위로가 됐으면

개업 100일 도넛 100인분 기탁한 도넛플랜 뉴욕시티 김윤서 사장

“달콤한 도넛이 추석을 앞두고 설에 빠져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호1동 메트로상가에서 도넛플랜뉴욕시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서 사장은 지난 16일 개업 100일 기념과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의 하나로 100인분의 도넛과 성금을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평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작은 위로라도 보이고 싶었다는 김 사장은 “트랜스 지방과

합성 첨가물 등 인체에 해로운 것을 사용하지 않은 도넛을 소외 받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맛있게 싶었다”며 “비록 작은 성·금품이지만 정성을 다한 만큼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처음 시작한 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우선 가게 운영이 원활해지는 데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푸드뱅크에 참여해 그날그날 발생하는 임의식품을 기탁할 예정이라



고, 이와 더불어 봉사단체에 참여해 주기적인 노력봉사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도넛플랜 뉴욕시티에서 기탁한 도넛과 성금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청소년 중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전달됐다.

신경희 기자

실질적인 보상 이뤄져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김순심 부산남구지회장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 또는 징병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및 유가족 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만 변호사 수임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단 한명이라도 해당되면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생존자 또는 미망인, 자식, 며느리, 형제, 조카의 범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하여 주십시오”

대연6동에 살고 있는 김순심씨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굴욕의 과거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굳게 세우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순심씨는 현재 태평양전쟁희생

자유족회 부산남구지회장으로 활동하며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일본 정부와 군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대일배상 관련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강제징용 생존자나 유족이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보상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아버지가 강제징용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어 이 일을 시작했다는 그녀는 “유족회는 지난 3월 민간청구권소송단을 출범시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국제



변호인단을 선임해 6만명으로부터 수임계약 신청을 받았다”며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소송에 참여해 강제징용자들을 고용해 수해를 본 일본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옥련 기자

보상청구 접수하세요
☎010-5048-6384

웃다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웃음강좌 개설한 부경대 평생교육원 조상영 교수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보면 웃을 일이 꼭 생긴다”는 말처럼 웃으면 복이온다”

조상영 부경대 평생교육원 지도교수는 “웃음치료와 유머해법”강좌를 통해 웃음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그가 맡고 있는 강좌에는 50여명의 수강생들이 몰려들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다.

조 교수는 “웃음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와 엔돌핀을 증가시켜 몸매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이라며 현대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새로운 키워드로서의 웃음을 소개한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올바른 웃음법은 무엇일까. 조 교수는 먼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크게 웃으라고 주문한다. 다음은 엔돌핀과 NK세포 형성을 위해 15초 이상 길게 웃을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온몸으로 웃으며 박장대소하면 웃음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조상영 교수는 지난달 24일 구청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웃음강연을 펼치는 등 현재 건강보험평가심사원과 강사구청 여성센터, 신라대 시니어스과정의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010-4567-2233